

사용자의 PC에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 웹상 문서나 콘텐츠를 사용자 PC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기술입니다.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MS가 IE(인터넷 익스플로러)용으로 개발했으나 최근에는 각종 악성코드 유포나 운영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브 X가 국내에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국내 사이트 주요 사이트 대부분이 다양한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를 지원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주요 사이트들은 대부분이 3종 이상의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의 IE 종속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모두 IE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업체에서는 대부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데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 대부분 신기술 개발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보안 문제로 연결돼 각종 인터넷 대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부채는 액티브 X와 관련이 깊은 단어인데, 기술적 부채(Technical Debt)는 기존 기술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음 기술이 발전하는데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워드 커닝햄(Ward Cunningham)이라는 프로그래머가 1992년에 한 얘기로 액티브X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런 경우에 대비가 필요함을 내다 본 것입니다.

당시 웹에서 많은 기능을 구현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액티브X는 혁신적이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액티브X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현하다 보니 이후에 다른 기술이 나타나더라도 액티브X를 고집하게 되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술적 부채와 액티브X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액티브X를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야 코딩을 배우는 입장이고, 배우기 더 쉬운 툴이 있다면 그 것을 통해서 입문하기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딩을 배우기전 홈페이지를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워드프레스의 툴들을 사용해보니 html에 생소한 저도 깔끔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주소 <http://kudos.ne.kr>) 만약 워드프레스가 없었다면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먼저 배운 뒤에 좀 더 고급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액티브X는 분명 편한 기술이었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었을 때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들이 충분히 많았다면, 아마 액티브X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배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분명 제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훨씬 더 접근성을 높여주겠지만 그 것에만 안주하면 전 개발자가 아니라 그저 취미로 개발을 배운 사람으로 머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